

# 조선시대 직물의 시기감정을 위한 꽃무늬 조형특성 연구

조 효 숙

경원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 A Study on Flower Patterns Found in the Fabrics of the Joseon Dynasty

Hyo-Sook Cho

Professor, Dept of Clothing, Kyungwon University

(2008. 5. 20 투고)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presentative flower patterns in the Joseon Dynasty and investigate their chronological transition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i.e. 16th century), lotus patterns were very popular. Often lotus patterns were twisted around by ivy-leaves or decorated with treasures pattern in the margin. In the mid Joseon Dynasty (i.e. from 17th to mid 18th century), however, lotus patterns evolved from the typical lotus and ivy pattern and diversified into four types. In the 19th century, lotus pattern almost disappeared from the textiles of everyday dresses and were only found in the textiles of formal dresses or in special cases as in the cover pages of Buddhist scriptures.

Poeny patterns was rarely used in textiles of 16th century, presumably because of the huge popularity of the lotus pattern. However, suddenly in the 17th century, Poeny patterns appeared quite frequently. There were 3 types of Poeny patterns. Poeny patterns became more popular over the years and it finally became a primary motive in textiles patterns for 100 years starting in the late 19th century. There were two types of Poeny patterns : one was realistic and true to life even in sizes, the other was more symbolic.

Textile patterns combining four kinds of flowers started to appear from the late Koryo Dynasty but Flower patterns representing four seasons with distinct shapes appeared only in the 17th century. They could b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In the late 18th century, Flower patterns representing four seasons no longer appears in textile patterns, presumably due to a new preference for lucky omen over natural motives.

Key words: Joseon Dynasty(조선시대), lotus patterns(연꽃무늬), Poeny patterns(모란무늬), Flower patterns representing four seasons(사계화무늬)

## I. 서론

인간은 자신의 몸에 걸치는 의복의 옷감에 자신이 원하는 무늬를 만들어 넣음으로써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욕구도 충족했지만, 또 한편으로 그 무늬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특별한 상징성을 부여하였다. 인간들의 이런 욕구와 노력을 통해 옷감의 무늬는 한 시대의 고유한 양식으로 발전되기도 하고 민족별 고유 특성이 발현되기도 했다. 즉 옷감에 나타난 무늬들은 길게는 이천여 년 동안 시대별로 옛 조상들의 사고와 감정이 이입, 정착된 산 증거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는 유물의 시대를 판별할 수 있고, 조상의 변화해가는 미의식을 생생히 전달 받게 된다. 또한 우리가 전통무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를 지배했던 정신적 측면에 대한 지식 없이는 그 시대가 추구했던 미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복식사에서 무늬의 조형성을 연구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조선시대 전통직물의 가장 중요한 무늬 소재는 단연 꽃이다. 그중에서도 연꽃[蓮花]과, 모란[牧丹]무늬가 중요하게 사용되었고, 그 외에 네 종류의 꽃무늬를 모아놓은 사양화[四樣花]무늬가 많이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시대의 직물무늬 중에 연꽃과 모란, 그리고 사양화무늬 등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꽃무늬를 선정하여 시대 흐름에 따른 꽃무늬 유행경향을 조사하고, 무늬를 표현함에 있어 시대별 조형성의 변천과정을 밝혀내고자 한다. 그 외에 문헌자료를 통하여 이러한 무늬들의 유래와 명칭에 관하여도 조사하고자 한다.

전통무늬에 관한 서적이거나 논문들은 복식 분야는 물론 도자기, 금속공예를 비롯하여 다른 공예 분야에서도 매우 다양하게 발표된 바 있으나 대부분 『한국의 전통문양』<sup>1)</sup>과 같은 여러 분야의 무늬를 포괄적으로 다룬 서적이며, 특별히 직물로 범위를 한정된 연구라 하더라도 ‘조선시대 후기와 에도시대의 직물에 표현된 식물무늬 연구’<sup>2)</sup>와 같이 사용된 무늬의 종류를 설명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직물에 표현된 꽃무늬의 조형성을 통하여

시기감정을 논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주제로 발표된 바 없으므로 그 필요성을 역설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견직물의 시기 감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II단원에서는 문헌고찰 및 실증고찰을 통하여 조선시대 직물에 사용된 전반적인 꽃무늬의 종류 및 구성을 조사하여 큰 범위에서 시기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III단원에서는 연꽃무늬, 모란무늬, 사양화무늬 등의 조선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꽃무늬의 구성방법, 표현법 및 배열구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시기별로 나타나는 조형특성의 변천과정을 정리함으로써 복식 및 직물유물들의 시기감정에 기준이 되는 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보려고 한다.

## II. 조선시대 직물에 시문된 꽃무늬

### 1. 문헌에 기록된 꽃무늬

우리나라에서는 직물명칭을 부를 때 꽃무늬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꽃 이름을 말하지 않고 ‘화문(花紋)’이라고 적당히 통칭 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그래도 1493년(성종 24)에 편찬한 음악총서, 『악학궤범(樂學軌範)』에는 비교적 구체적인 옷감무늬의 명칭이 나오는데 절화문(切花紋), 만화문(蔓花紋), 금화문(金花紋), 부용문(芙蓉紋), 모란문[牧丹紋], 소화문(小花紋) 정도가 기록되었다.<sup>3)</sup> 대부분의 『조선왕조실록』에는 구체적인 이름 보다는 화문단, 화문사와 같이 포괄적으로 기록되었지만 특별히 『연산군일기』에서는 세화문(細花紋), 만금선(滿金線), 칠보세화문(七寶細花紋), 사양화문(四樣花紋), 목단화(牧丹花)와 같이 꽃무늬의 상태를 좀 더 자세히 표현한 기록이 보인다.<sup>4)</sup>

한편 『조선왕조실록』의 내용 중 중국에서 보낸 직물을 기록한 자료에도 꽃 이름이 간혹 보이는데 『단종실록』<sup>5)</sup>에는 해당사계화문(海棠四季花紋)이, 『세조실록』<sup>6)</sup>에는 세화(細花), 전지보상화(纏枝寶相花), 구문보상화(毬文寶相花), 연승보상화(連勝寶相花), 연구화(蓮球花) 등이 기록되었으며, 『성종실록』<sup>7)</sup>에는

규화(葵花), 사계화(四季花), 전지목향화(纏枝木香花)의 기록이 있고, 『인조실록』<sup>8)</sup>에는 연실상화(蓮實相花)가 기록되어 좀 더 구체적인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말기의 자료 중에는 중국에서 보낸 직물이 아닌 경우에도 꽃 명칭이 보이는데 『순조실록』<sup>9)</sup>에는 도류문(桃榴紋)이 자주보이며, 『순종실록』<sup>10)</sup>에 매란문(梅蘭紋), 이화문(梨花紋), 모란문[牧丹紋]이 있고, 『순화궁첩초』<sup>11)</sup>에는 무궁화무늬를 뜻하는 화근문(花槿紋)도 있다. 또한 19세기 궁중의 의복실태를 자세히 알 수 있는 『불기』<sup>12)</sup>에도 도류문(桃榴紋), 매란문(梅蘭紋) 등이 자주 보여 시대별로 어떤 꽃무늬가 유행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밖에 중국어 학습서인 『노걸대(老乞大)』, 『박통사(朴通事)』, 『역어유해(譯語類解)』에는 중국의 직물 명칭을 적고 우리말로 풀이한 항목이 있어 당시의 무늬 명칭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박통사』와 『노걸대』에는 비슷한 직물명칭이 보이는데 꽃무늬로는 서번련(西蕃蓮), 전지목단(纏枝牧丹), 목단(牧丹), 사계화(四季花), 사화(四花), 매화(梅花), 필관화(筆管花), 보상화(寶相花) 등이 나타난다.<sup>13)</sup> 그 중 전지목단은 '넉출모란 문'으로 이해하였으며 필관화는 '붓꽃 문'으로 이해하였는데 즉 창포 꽃을 뜻한다. 서번련은 '효근련꽃'으로 이해되어 작은 연꽃의 일종을 의미하였다. 『역어유해』에는 봉간매문(蜂趕梅紋), 사계화(四季花) 등의 기록을 통하여 매화, 사계화 등의 꽃 명칭을 찾아 볼 수 있다.<sup>14)</sup>

## 2. 옷감에 시문된 꽃무늬

조선시대의 전통 직물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무늬의 소재는 단연 꽃무늬이다. 조선시대 직물에 시문된 꽃무늬의 유형은 크게 7가지로 구분하였다. 연꽃을 주 소재로 한 연꽃무늬[蓮花紋], 모란을 주 소재로 한 모란무늬[牧丹紋], 동백, 연꽃, 장미, 모란, 국화와 같은 사계절의 꽃들을 중심 소재로 한 사계절꽃무늬[四樣花紋], 매화, 난초, 국화, 대를 소재로 한 사군자 무늬[四君子紋], 꽃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보다는 작고 단순한 모습으로 도안한 작은 꽃무늬[細花紋], 역시 꽃의 정체성을 표현하기보다는 시각

적으로 화려하게 서양풍으로 도안한 큰 꽃무늬[大花紋], 그 외에 이 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꽃 종류 등 7가지 유형이다.

조선시대 직물에 나타난 꽃의 종류는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연꽃[蓮花], 모란[牧丹], 복숭아꽃[桃花], 매화(梅花), 동백꽃[冬花, 茶花], 배꽃[梨花], 석류꽃[石榴花], 국화(菊花), 백일홍[紫微花], 수국[綉毬花], 닥풀[黃蜀葵], 해당(海棠), 월계화(月季花), 수선화(水仙), 난초(蘭), 오얏꽃[李花], 보상화(寶相花) 등이 있다. 이들 무늬는 꽃만을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른 보조 무늬와 함께 구성되는데, 시대에 따라 꽃과 넝쿨, 꽃과 보배, 꽃과 새, 꽃과 곤충, 꽃과 문자 등 다양한 조합으로 변화되어 유행을 만들어 간다.

조선시대 직물에 표현된 무늬의 변화는 크게 3차례의 변화를 보이는데<sup>15)</sup> 꽃무늬 역시 이러한 변화와 맥을 같이하여 3기로 나누어볼 수 있다. 임진왜란 이전까지를 1기로 하고, 전란 이후 17-18세기 중반까지를 2기, 18세기 후반부터 조선왕조가 끝날 때까지를 3기로 구분하여 꽃무늬 사용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기에는 무늬의 대상이 되는 꽃의 소재가 다양하지 못하고 정형화 되어있다. 출토복식의 옷감 대부분에는 연화넝쿨무늬, 모란넝쿨무늬, 구름과 보배무늬가 시문되어있다. 연꽃이나 모란의 형태도 정형화되었으며, 사이에는 여백이 없이 만초넝쿨과 보배무늬를 가득 채워 전체적으로 충전된 느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조선중기에 해당하는 2기에는 얼핏 보기에 눈에 띄지 않지만 은근한 아름다움을 선호하였고, 직물 전체에 무늬가 가득 찬 충전형의 배열보다는 여백 있는 회화풍구도나 산점형 구도를 선호하였다. 꽃무늬의 소재도 조선전기에서와 같은 연꽃과 모란의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양해졌고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서정적으로 표현한 사계절을 대표하는 꽃들과 새의 결합이 많이 보인다. 서정적 표현의 꽃무늬 이외에 기하형 도안속에 단순화한 꽃무늬도 많이 보인다.

조선말기에 해당하는 3기가 되면 직물무늬의 소재를 선택함에 있어 사계절을 서정적으로 표현하는 꽃들은 사라지고 벽사나 길상에 대한 선호가 무엇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당시 사람들은 무늬에 담긴 상서로움이 옷을 지어 입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고 믿음으로서 스스로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말기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소재는 석류(꽃), 복숭아(꽃), 불수감으로 구성된 도류불수무늬(桃榴佛手紋), 무병장수를 상징하는 호리병과 복숭아꽃으로 구성된 호로무늬(胡虜紋), 매화, 난초, 국화, 대로 구성된 사군자무늬(四君子紋), 여기에 부를 상징하는 모란과, 왕실을 상징하는 오얏꽃 [李花]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들 벽사나 길상을 상징하는 식물 소재만으로는 감정 표현이 부족하다고 여겨 착용자의 간절한 바람을 수(壽), 복(福), 희(喜), 만(卍)자 와 같은 문자 자체를 직접 무늬로 도안하여 넣으므로 좀 더 강력한 부적과 같은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다.

### Ⅲ. 시대별 꽃무늬의 조형성 변천

앞 단원에서 밝힌바와 같이 조선시대 직물에 표현된 꽃무늬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유형도 크게 일곱 가지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늬를 통한 시대 구분을 위하여 꽃무늬의 7가지 유형 중에서도 조선시대에서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났던 연꽃, 모란, 사양화무늬를 대표적인 소재로 선택하여 시대별로 조형성의 변천과정을 연구하고자 한다. 물론 옷감의 특징상 오랜 기간 보관하였다가 옷을 지어 입는 돌출된 사례가 간혹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단원에서는 유행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일반적인 범례를 기본으로 하였다.

#### 1. 연꽃무늬

연꽃무늬는 오랜 세월동안 폭 넓게 사용되어 온 식물무늬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는 불교의 전래와 함께 삼국시대부터 각종 공예품 무늬로 활용되었으며,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옷감무늬 중에 가장 사랑을 받았던 무늬이다. 특히 조선 전기의 출토복식에서는 연꽃무늬의 옷감이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이다.

연꽃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키우던 연꽃은 수련의 일종으로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가 원산지이며 끝이 뽀족한 꽃잎이 동그랗게 모여 있는 탐스러운 꽃송이와 커다란 원형의 잎사귀, 씨가 들어있는 둥근 연방(蓮房:현대에 꽃턱이라함)으로 이루어졌다.

연꽃은 연화(蓮花) 또는 하화(荷花), 부용(芙蓉)이라고도 불렀다. 조선초기의 서화가이자 문신인 강희안(1417-1465)은 『양화소록(養花小錄)』에서 “연은 부거(芙蓉)라고도 하며 줄기는 여(茹)라 하고, 잎을 하(荷)라 하며 꽃은 함담(菡萏)이라고 하며 열매는 연(蓮)이고 뿌리는 우(藕)라하고 씨는 적(的)이라한다”고 하였다.<sup>1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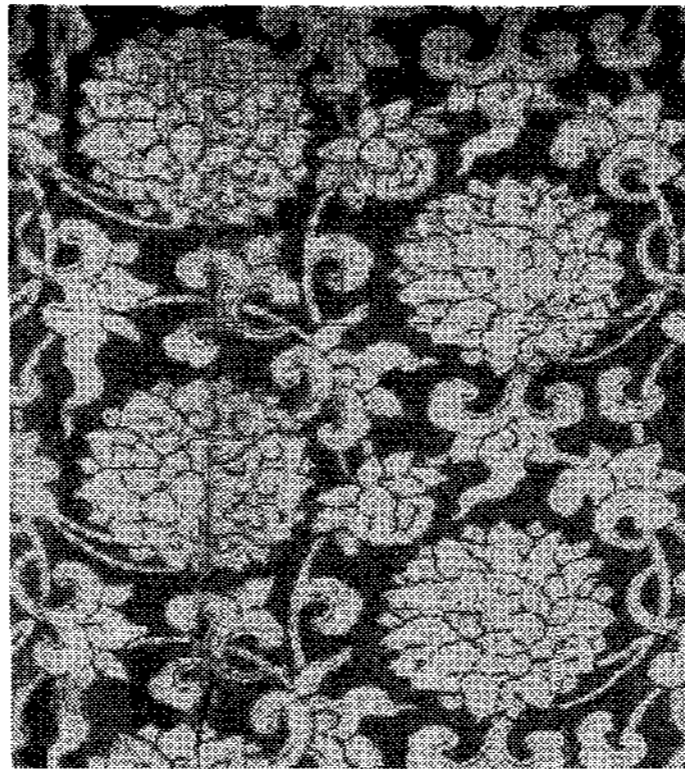
연꽃은 불교에서 청결, 순결의 상징물이며, 유교에서는 군자의 청빈과 고고함을 상징하고, 도가(道家)에서는 팔선(八仙) 가운데 하나인 하선고(荷仙姑)가 항상 지니고 다니는 신령스러운 꽃이다. 또한 환생(還生)과 재생(再生)을 상징하기도 하며, 『군방보(群芳譜)』에서는 “식물은 꽃을 피운 뒤 열매를 맺으나, 연꽃은 꽃과 열매가 함께 나란히 생겨난다”고 하여 연생(蓮生), 곧 ‘연이어 자손을 얻는다’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처럼 불교, 도교, 유교 등에서 중요하게 여겨온 상징성 때문에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조선시대의 사대부는 정원의 연못에 연꽃을 심는 것을 정신적인 멋의 추구로 여겼으며, 연못이 없으면 집 뜰에 넓적한 자배기에라도 연을 길렀다고 한다.

이처럼 연꽃은 조선시대 지배계층의 취향, 태도, 분위기에서 우리나라는 멋의 대상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시대정신이 반영된 이상미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상미는 그 시대의 문화적 산물을 통해 가시화되고 구체화되는데, 당시 사대부들의 연꽃에 대한 태도에 기인하여 일반사람들도 연꽃무늬가 옷감 전체에 가득 차게 도안된 옷감을 매우 선호하게 되었고 남녀 모두 연꽃무늬의 옷을 입는 것을 그 시대의 구체적인 이상미의 표현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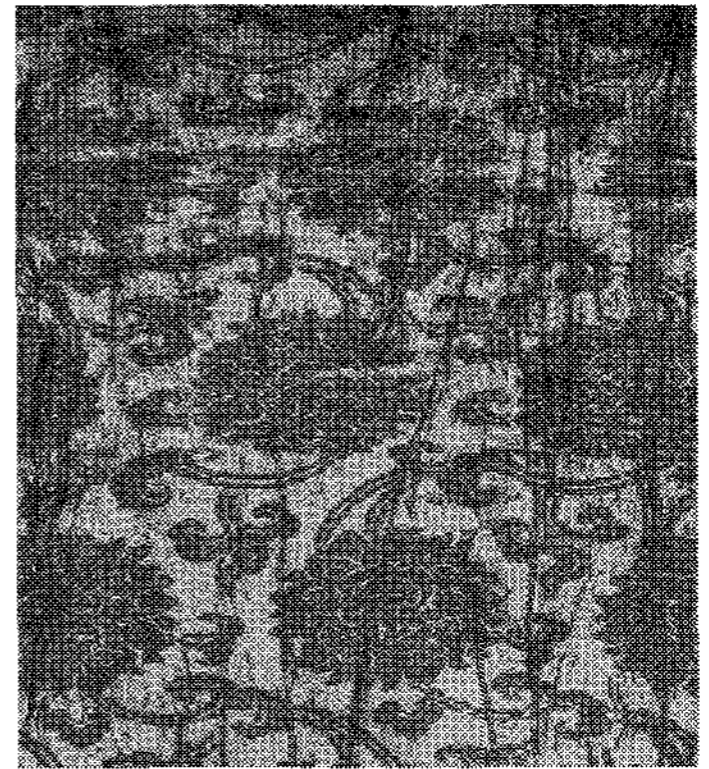
연꽃무늬 구성은 시대별로 3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16세기까지는 경기도 파주에서 출토된 파평윤씨(?-1566)묘 출토직물<sup>17)</sup>(그림 1)에서와 같이 연꽃의 주위를 만초넝쿨이 둥글게 감고 있으며 사이



〈그림 1〉 파평윤씨(-1566)복식의 연꽃무늬



〈그림 2〉 장기정씨(1565-1614)복식의 연꽃무늬



〈그림 3〉 김여온(1596-1665)복식의 연꽃무늬

사이에 연잎이 달려있는 형태의 연꽃넝쿨무늬〔蓮花蔓草紋〕로 여백에 보배무늬를 넣어 충전감을 더한 것이 대부분으로 이 시대를 대표하는 무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보인다.

17세기가 되면서 사계절의 대표 꽃을 모아놓은 사양화(四樣花) 혹은 사계화(四季花) 무늬의 유행으로 인하여 연꽃넝쿨무늬 옷감의 출토 비율은 점차 줄어들지만 아직도 다양한 구성 방법으로 인기있는 무늬 중의 하나이다. 즉 17세기에서 18세기 중기에 이르기까지 연꽃무늬의 구성방법은 다양화되며 이를 크게 4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구성방법은 앞에서 제시한 파평윤씨의 직물〈그림 1〉과 동일하게 연꽃과 연잎, 넝쿨로 이루어지나 장기정씨(1565-1614)묘에서 출토된 직물<sup>18)</sup>〈그림 2〉이나 김여온(1596-1665)의 묘에서 출토된 직물<sup>19)</sup>〈그림 3〉에서와 같이 연꽃의 표현양식에서 변화를 보이는 것, 둘째는 탐릉군(1636-1731)<sup>20)</sup>복식 〈그림 4〉에서와 같이 연꽃만 단독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모란, 국화, 월계화와 같은 꽃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2종류의 꽃이 한 쌍을 이루어 교대로 도안한 것, 셋째 장기정씨(1565-1614)묘에서 출토된 직물<sup>21)</sup>〈그림 5〉과 17세기의 저고리용 직물<sup>22)</sup>〈그림 6〉에서와 같이 봄, 가을, 겨울을 상징하는 3종류의 다른 꽃들과 함께 복합구성을 한 것, 넷째 안동권씨(1664-1722)묘 출토직물<sup>23)</sup>〈그림 7〉에서와 같이 천도, 나비 등의 다른 사물과 함께 구성하여 원형, 타원형, 사각형의 단위무늬로 도안한 것으로 구성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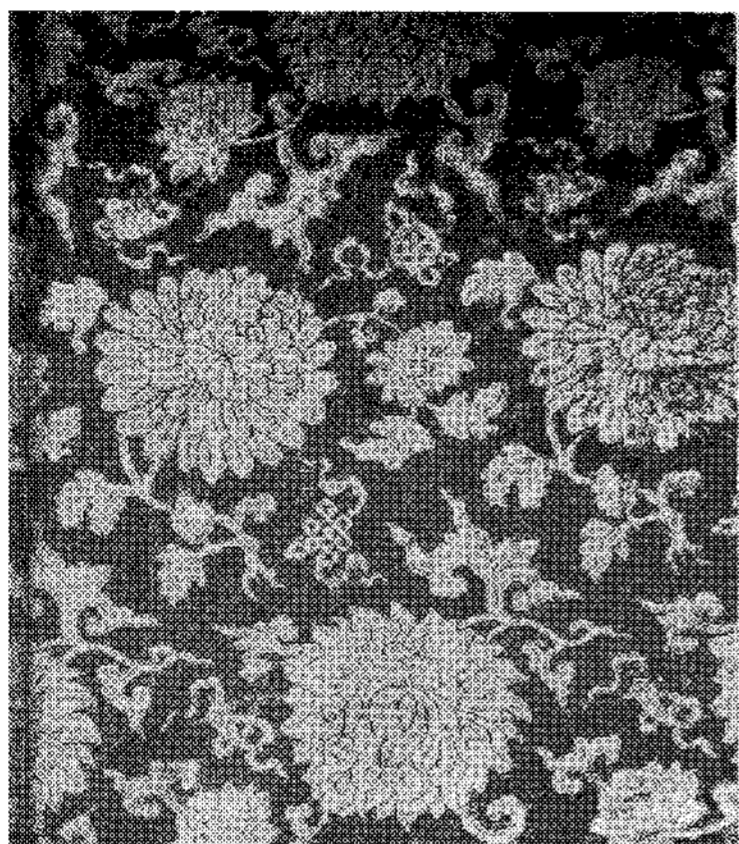
이 구분된다.

19세기가 되면 연꽃무늬는 평상복의 옷감에서는 거의 사라져버리고, 원삼과 같은 특수 예복에 부분적으로 사용되거나 불경의 표지 등 특별한 사례에서 보일 뿐이며 구성 및 형태는 〈그림 2〉 〈그림 3〉과 같은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연꽃의 구성방법 뿐만 아니고 연꽃과 넝쿨의 표현양식에서도 시대에 따른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언뜻 보면 연꽃이 넝쿨에 휘감긴 모습이 모두 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꽃잎, 잎사귀, 넝쿨의 형태에서 시대별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고려시대에도 연꽃넝쿨무늬가 있었는데 1346년에 복장한 장곡사 철조약사불 복장직물<sup>24)</sup>〈그림 8〉에서와 같이 연꽃은 뽕족한 꽃잎의 특성을 단순하고 깔끔하게 측면형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아직 조선시대에 보이는 둥근 넝쿨 모습은 출현하지 않았으며 자그마한 연꽃에 짧은 가지와 잎을 연결한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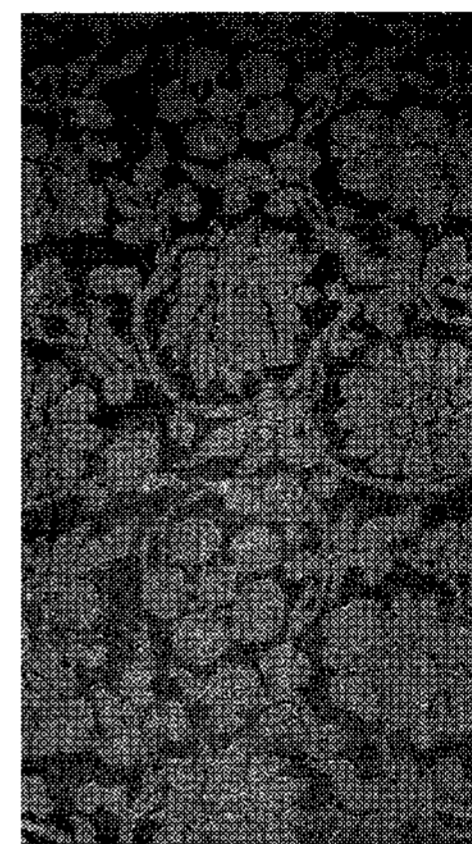
조선시대로 넘어와서도 초기에는 아직 고려시대의 단순한 연꽃 모습이 남아있다. 16세기에 사망한 청주한씨 치마<sup>25)</sup>〈그림 9〉에서와 같이 측면형의 연꽃을 단순하고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고려시대와 차이점은 꽃송이가 약간 커졌고 꽃 주위를 감고 있는 C자형의 넝쿨이 처음으로 출현하기 시작하였는데 넝쿨의 형태는 아직 후대에 비하여 휘감김이 빈약하고



〈그림 4〉 탐릉군(1636-1731)복식의 연꽃무늬



〈그림 5〉 장기성씨(1565-1614)복식의 연꽃무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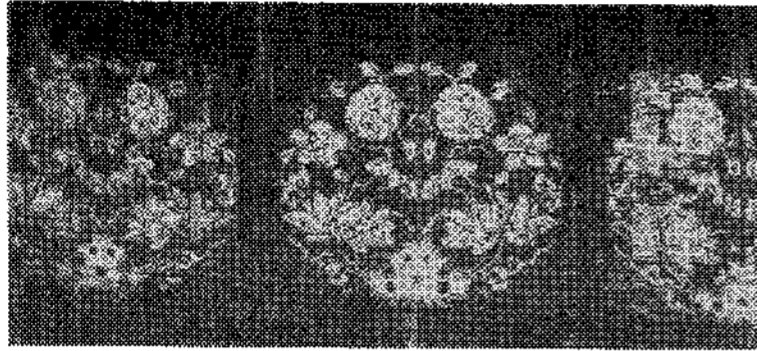


〈그림 6〉 17세기 복식의 연꽃무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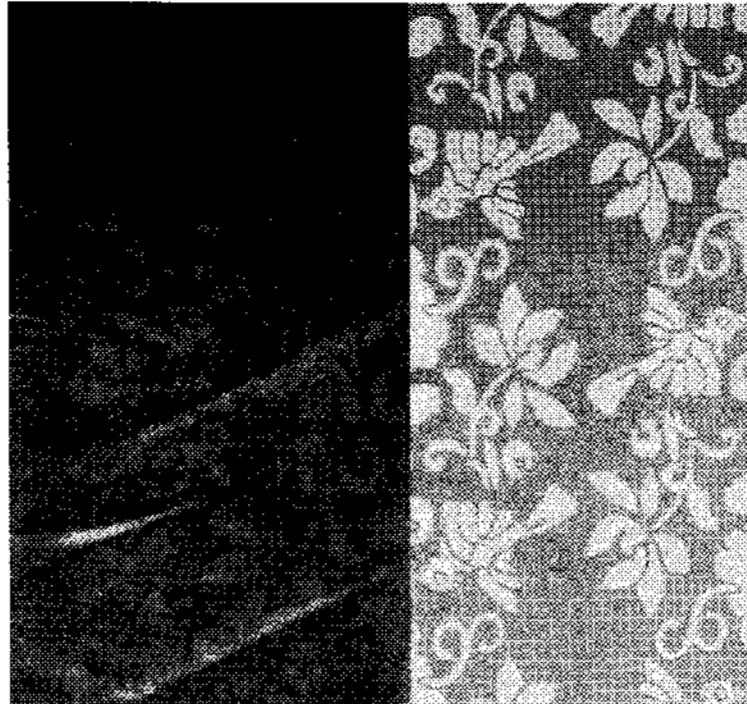
장식적인 느낌이 약하다. 또한 16세기에는 위에서 설명한 측면형의 연꽃과 함께 〈그림 1〉의 꽃송이 속에 연방이 들어있는 변형된 연꽃 도안도 병행하여 사용되기 시작하는데 꽃잎 하단을 휘감긴 곡선으로 표현하여 좀 더 화려하게 도안하였다. 즉 단순한 측면형의 연꽃과 연방이 들어있는 연꽃 2종류를 한 쌍으로 하여 교대로 배열하였다. 연꽃은 크기가 4-5cm 정도로 크지 않으며 만초 넝쿨로 연결되었는데 넝쿨에는 십자형, 혹은 측면형으로 서있는 연잎사귀 등 〈그림 9〉의 연꽃무늬 보다 더 구체적으로 묘사된 잎사귀들이 달려있으며 여백에는 보문이 가득 들어있어 전체적으로 가득찬 충전형 구도를 이룬다. 이러한 직물은 대부분 사용한 견사가 매끄럽지 못하여 옷감도 표면이 거칠고 광택이 적으며 무늬의 외곽선도 매끄럽게 표현되지 못하였다. 바로 이러한 조형성의 연꽃넝쿨무늬가 16세기를 대표하는 직물무늬로 자리매김되었고,<sup>26)</sup> 남녀 의복용으로 사용하였던 화문단이 다량 출토되었다.

17세기에서 18세기 중기까지의 유물에서는 연꽃의 구성도 다양하듯이 표현양식도 다양해진다. 첫째 17세기에는 앞에서 설명한 16세기의 전형적인 연꽃무늬 보다는 화려한 곡선의 꽃잎을 여러 겹 중첩되게 묘사한 보상화풍 연꽃이 더 많이 나타난다. 보상화풍의 연꽃은 〈그림 2〉와 〈그림 3〉에서와 같이 연꽃만 단독으로 구성된 경우와 〈그림 4〉에서와 같이 2종류

의 꽃이 짝을 이루며 구성된 경우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처럼 변형된 연꽃무늬는 전시대에 비하여 꽃의 크기가 대형화되어서 연꽃의 크기가 9-13cm 정도이며 단위무늬의 반복이 20cm 정도 되는 큰 무늬가 많고 줄기가 둥글게 휘감긴 충전형 구도이다. 표현상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꽃잎 끝부분을 뾰족하게 도안하여 최소한의 연꽃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꽃잎의 하단부에는 강한 곡선으로 감겨졌으며, 이러한 꽃잎을 여러 겹 중첩되게 표현하여 둥글고 풍만한 보상화풍으로 도안되었다. 또한 넝쿨도 둥근 원형을 이루며 강하게 휘감기고 여기에는 사실적 형태의 둥근 연잎과 연방이 달린 것도 있으며, 연잎 대신에 전형적인 팔메트 형태의 잎을 연결하여 연꽃의 특성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보상화풍의 화려한 느낌을 더 강조한 것도 많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꽃무늬를 중국에서는 '연보상화무늬'라고도 하며 곡선의 느낌이 강하여 '구련화(勾蓮花)'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보상화풍의 특징 때문에 모란과 혼동되어 설명한 책도 있으나 모란은 꽃잎은 뾰족하게 묘사하지 않고 구불거리는 파상형으로 표현하여 연꽃과 구별된다. 보상화풍으로 변화한 연꽃무늬의 옷감은 대체로 표면이 매끄럽고 툭툭하며 꽃의 외곽선이 좀 더 깔끔하게 정리되어 품질이 좋게 느껴진다.



〈그림 7〉 안동권씨(1664-1722) 복식의 연꽃무늬



〈그림 8〉 장곡사불복장(1346)직물의 연꽃무늬



〈그림 9〉 청주한씨(16세기)복식의 연꽃무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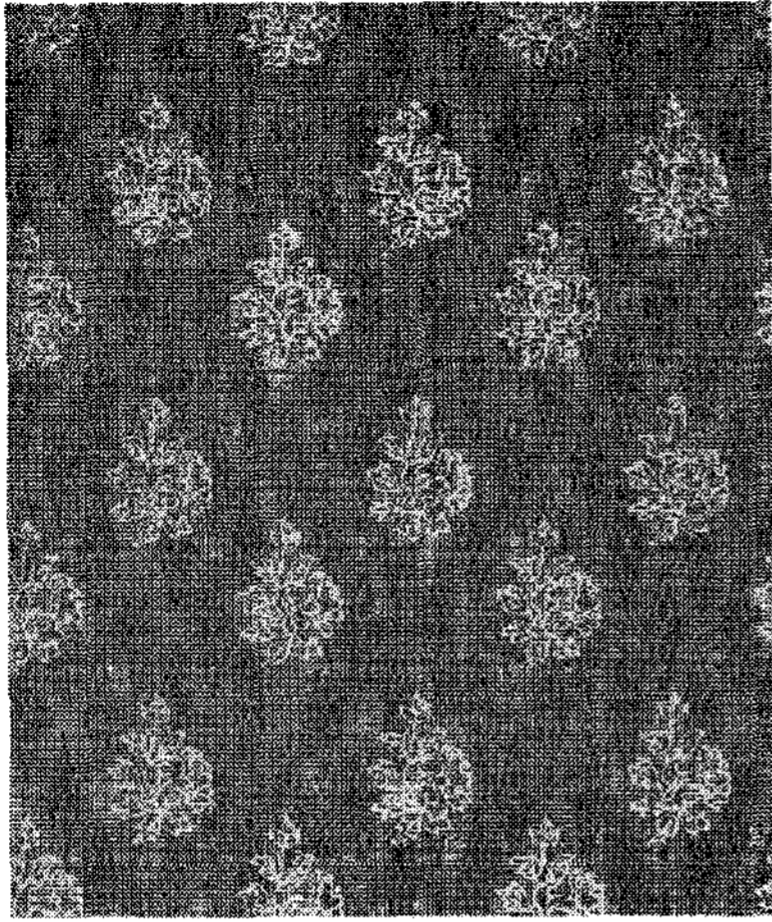
〈표 1〉 연꽃무늬의 시기별 조형특징

시기 종류조형성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구성	① 다른 종류의 꽃과 혼합하지 않고 연꽃과 연밥, 연잎을 연결하는 넝쿨로 구성 ② 위의 구성을 기본으로 하고 여백에 4-8종류의 보배무늬를 넣음	4종류의 구성법이 혼재됨 ① 연꽃을 주무늬로 하여 연방, 연잎이 과 함께 넝쿨에 연결한 단독구성 ② 모란 혹은 국화, 월계화등과 2종류 꽃으로 복합구성 ③ 사계화중의 일부로 복합구성 ④ 나비, 석류, 천도 등과 함께 기하형 틀 속에 넣은 복합구성			① 일반복식: 연꽃무늬 사용빈도가 매우 낮다. ② 예복: 16, 17세기의 넝쿨형 기본구성을 그대로 사용
연꽃무늬 표현	측면형의 연꽃이 비교적 단순하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 측면형의 연꽃과 한 쌍을 이루는 다른 연꽃은 중심에 연방이 들어있고 둥근 잎사귀가 넝쿨줄기에 연결된 넝쿨형.	① ② 연꽃의 특성이 약화된 화려한 보상화풍으로 변형. 대부분 넝쿨형으로 표현하고 단위무늬가 20cm 정도로 대형화됨. ③ 측면형 연꽃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꽃가지형으로 표현. ④ 꽃가지형이나 꽃잎형 연꽃을 원형 혹은 사각형의 기하형 틀에 넣어 기하학적인 느낌이 강하다.			① 일반복식: 정체성이 약화된 초화무늬의 형태로 변화 ② 예복: 전 시대에 유행되었던 보상화풍의 넝쿨형 연꽃무늬가 연속됨
구도	충전구도	① ② 충전구도 ③ 회화풍구도 산점구도 ④ 산점구도(격자형 혹은 일자형)			① 일반복식: 충전형 ② 예복: 충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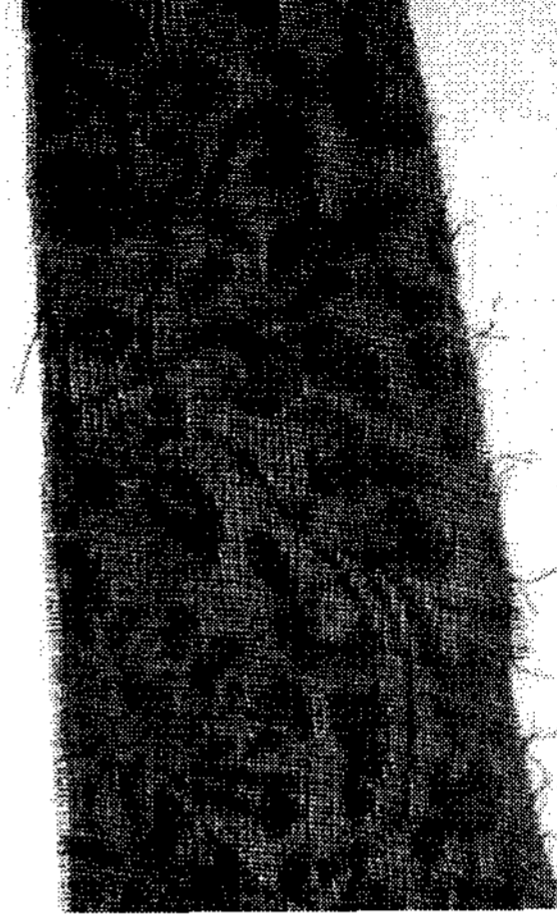
둘째, 〈그림 5〉, 〈그림 6〉의 사계화무늬에서와 같이 다른 세 종류의 꽃들과 함께 구성된 경우는 측면형의 꽃을 실물에 가깝게 사실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넝쿨형 혹은 꽃가지형[折枝形]<sup>27)</sup>으로 표현되었다. 꽃가지형의 연꽃 좌우에는 회화에서 볼 수 있는 측면으로 길게 서있는 연잎사귀와 연방, 그리고 기다란 부초가 조화를 이루게 묘사되었다. 일정한 줄이나 열

을 이루며 전개되어있지 않아 여백이 있으며 여백에는 벌, 새, 나비 등이 불규칙적으로 산재하여 그림을 보는 듯한 회화풍 구도를 이룬 경우가 많다.

셋째 〈그림 7〉에서와 같이 연꽃을 강조하기보다 원형, 타원형, 사각형의 기하형 도안 속에 단순화시킨 측면형의 연꽃을 나비, 천도등과 같이 다른 사물과 함께 구성한 모습으로 열듯 보면 연꽃은 외곽선



〈그림 10〉 아미타불복장(1302)직물의 금박용 모란무늬 일러스트



〈그림 11〉 아미타불복장(1302)직물의 모란무늬

에 묻혀버려 기하학적인 느낌이 강하다. 여기에서의 연꽃은 꽃잎형<sup>28)</sup>, 꽃가지형의 표현이 많고 격자 혹은 일자형으로 규칙 배열한 산점형 구도가 많다.

## 2. 모란무늬〔牡丹紋〕

모란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전래된 시기는 신라 시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삼국사기』 선덕여왕조(善德女王條)에 “모란화도(牡丹畵圖)와 씨앗이 진평왕(579~632년)때에 당에서 왔다”는 기록에 의함이다.

모란은 꽃잎이 탐스럽고 화려하기 때문에 화왕(花王)이라고 하며, 부귀를 상징하는 꽃이라 하여 부귀화(富貴花)로도 불렸다. 모란은 중국이 원산지인 식물로 우리나라에서 함박꽃이라고 부르는 작약과 외형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모란은 목본(木本)이고 작약은 초본(草本)인 점이 다르며 모란이 4월에 먼저 피었다가 진 후, 뒤이어서 작약이 5월경에 피기 시작한다. 이러한 연유로 서양에서도 모란은 tree peony, 작약은 peony로 구분하고 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란의 색깔은 붉은 자주색이며 노란색, 흰색, 담홍색, 흑자색의 모란도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눈에 띈다. 모란무늬는 이미 삼국시대에 중국문물의 수용과 더불어 들어왔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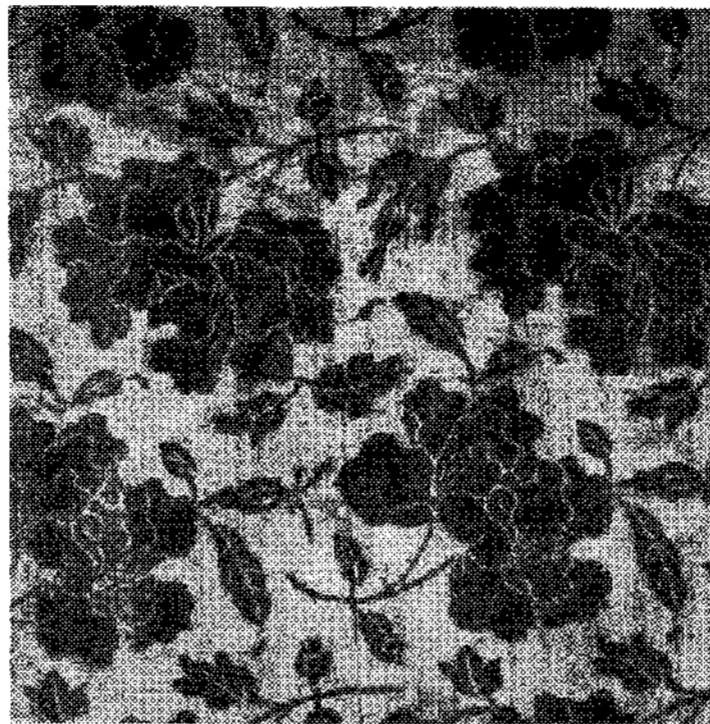
당시에는 모란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보다는 모란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 탈(脫) 모란 형태로 표현하였다. 조선시대가 되면서 모란무늬는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면서 민가의 생활에까지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다. 도자기와 목가구, 병풍이나 민화, 화문석 등의 공예품에서 모란무늬를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신분에 따른 무늬의 사용이 제한되었던 조선시대였지만 모란무늬만은 상류층과 서민층의 구별 없이 가장 애용되었던 무늬였다. 옷감의 무늬에서도 모란은 연꽃과 함께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직조, 자수, 금박 등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특히 조선 말기의 혼례복인 활옷과 수저집, 함보자기와 같은 혼례용품에는 빠져서는 안 될 무늬였고, 방장, 굴레, 댕기, 조바위, 노리개 등의 일상생활용품에서도 자주 사용되었으며, 조선 중기 관복의 흉배에서조차 그 배경에는 항상 모란무늬가 들어 있었다.

옷감에 나타난 모란무늬도 시대별로 조형적 특성의 변화를 찾아 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아미타불복장직물(1302)<sup>29)</sup>중에 모란무늬가 몇점 보이는데 〈그림 10〉에서와 같이 모란을 단순하게 꽃가지형으로 도안하여 금박으로 찍기도 하고, 〈그림 11〉의 라(羅)에서와 같이 모란을 중심에 두고 주위에 넝쿨무늬가 감기도록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같은 시대 고려청자나 불화에서 보이는 모란무늬와 조형성이





〈그림 12〉 장기정씨(1565-1614)복식의 모란무늬



〈그림 13〉 이응해(1547-1626)복식의 모란무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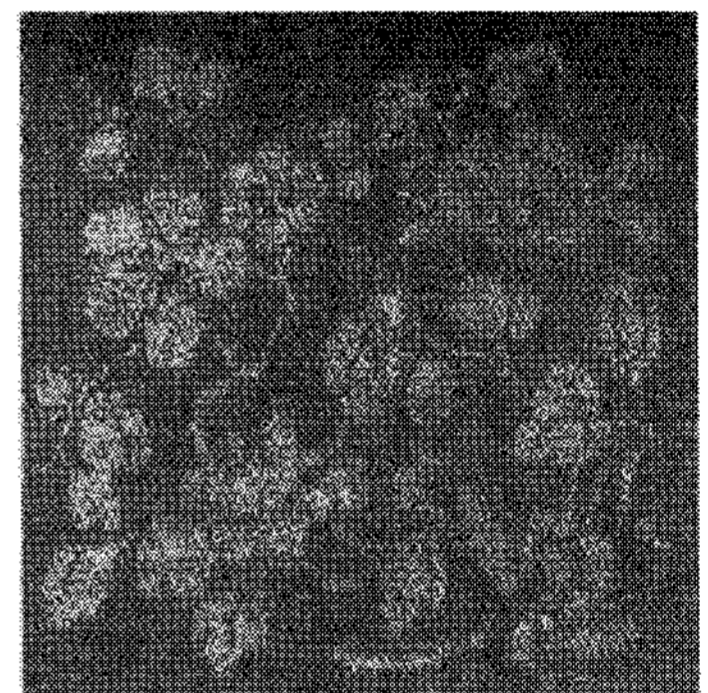
〈그림 14〉 김확(1572-1633) 복식의 모란무늬



〈그림 15〉 양천허씨(1566-1626)복식의 모란무늬



〈그림 16〉 안동권씨(1722)복식의 모란무늬



〈그림 17〉 남오성(1643-1712) 복식의 모란무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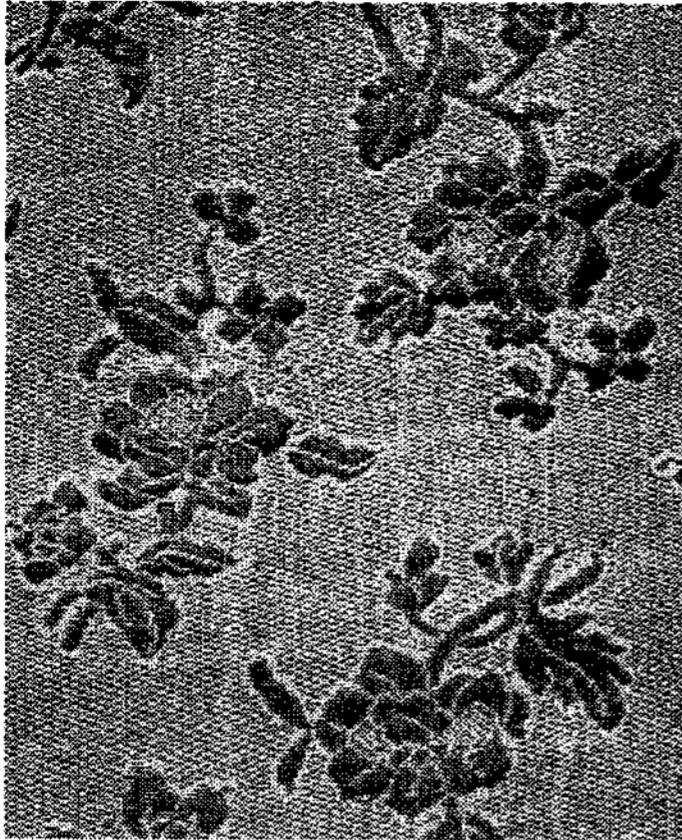
유사하다. 이 때 까지는 조선시대와 달리 모란의 특성을 사실적,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16세기까지의 출토 직물에서는 모란무늬가 나타난 사례가 많지 않으며 1566년에 사망한 파평윤씨의 복식 등 특별한 경우어나 드물게 나타날 뿐인데 이는 연꽃무늬가 워낙 유행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즈음의 연꽃무늬 직물 중에 보상화풍으로 변모한 연꽃이 모란과 혼동되어 모란으로 명명된 사례가 있으나 실제적인 모란무늬와는 차이를 보인다. 모란무늬와 연꽃무늬의 중요한 차이점은 꽃잎과 잎사귀의 형태에 있다. 모란의 꽃잎은 외곽선에 3-5개의 절각이 있는 파상곡선으로 표현하고, 연꽃은 꽃잎의 끝이 뾰족한 타원형의 계란모양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모란은 대부분 모란 특유의 손바닥 같은 잎사귀가 줄기에 연결되었으나 연꽃은 둥

글고 넓적한 형태의 연잎과 구멍이 숭숭 난 연방이 줄기에 달려있다.

17세기를 전후하여 여러 곳의 출토유물에서 모란무늬가 갑자기 많이 출현하기 시작한다. 포항에서 출토된 장기 정씨(1565~1614)를 비롯하여, 충주에서 출토된 이응해(1547-1626), 일영에서 출토된 양천 허씨(1566~1626), 포천에서 출토된 김확(1572-1633)부와 남양 홍씨(1584~1654)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모란무늬가 다수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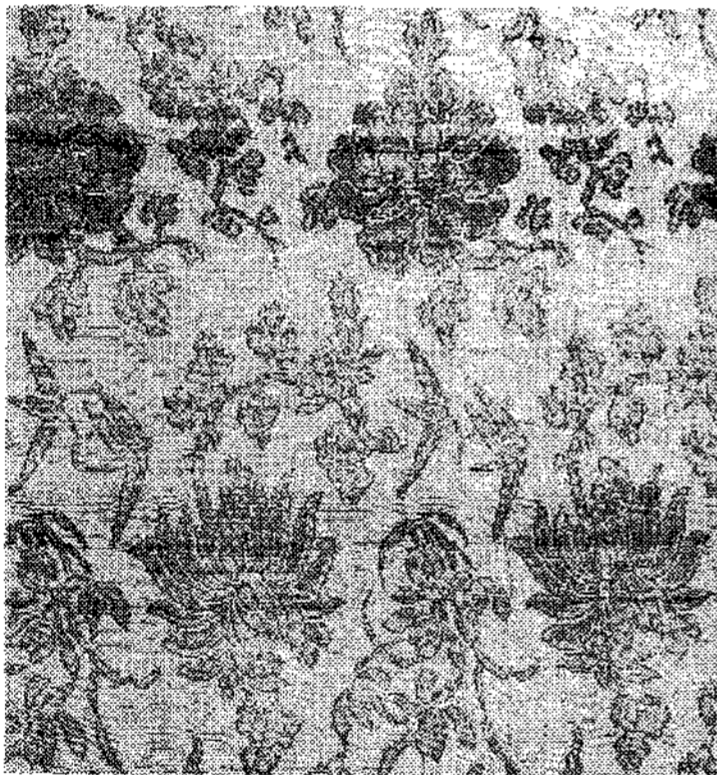
17세기에서 18세기 중기까지 유물에 나타난 모란무늬의 구성은 크게 네 종류로 구분된다. 첫째는 장기정씨의 저고리<sup>30)</sup>〈그림 12〉에서와 같이 모란꽃만 단독으로 넣고 모란꽃 주위를 C자형 만초 넝쿨이 휘감고 있는 구성이다. 둘째 이응해(1547-1626)의 단령<sup>31)</sup>〈그림 13〉에서 같이 모란을 월계화와 한 쌍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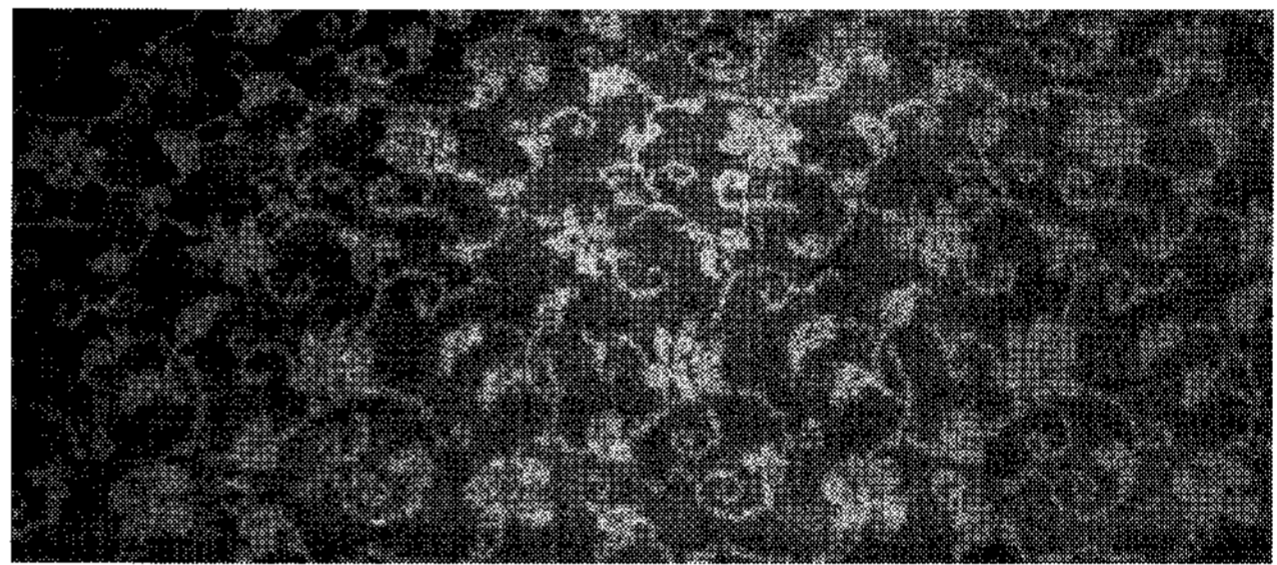
〈그림 18〉 영왕(19세기) 복식의 모란무늬



〈그림 19〉 안동김씨 집안(19세기) 직물의 모란무늬



〈그림 20〉 안동김씨 집안(19세기) 직물의 사군자무늬



〈그림 21〉 흑석사 복장(15세기) 직물의 세화무늬단

이루거나 김확(1572-1633)묘에서 출토된 동래정씨 치마<sup>32)</sup>〈그림 14〉에서와 같이 봉황과 한 쌍을 이루는 등 모란 이외의 다른 무늬와 한 쌍을 이루어 교대로 배열되는 구성이다. 셋째 양천 허씨(1566~1626년) 이불<sup>33)</sup>〈그림 15〉에서와 같이 중심무늬로 넣기 보다는 다른 다양한 무늬들과 함께 보조 무늬로 사용된 복합구성의 경우이다. 예를 들면 모란은 사계화 무늬에서도 여름, 가을, 겨울 꽃들과 함께 봄을 대표하는 꽃으로 복합구성을 이루었으며, 안동 권씨(1664~1722년)의 치마<sup>34)</sup>〈그림 16〉에서와 같이 각종 과실무늬와도 함께 구성되기도 하였다. 넷째, 남오성(1643-1712)의 묘에서 출토된 직물<sup>35)</sup>〈그림 17〉에서와 같이 다른 무늬들과 함께 구성하여 원형, 타원형, 사각형

의 단위무늬로 도안하였다.

이 시기의 모란무늬의 표현양식은 3종류로 구분된다. 첫째 모란만 단독으로 구성된 경우와 다른 소재와 한 쌍을 이루는 구성에서는 매우 사실적이며 정교하게 표현하여 누구든지 특성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12〉〈그림 13〉〈그림 14〉. 꽃잎의 외곽선을 3-5개의 결각이 있는 파상곡선으로 표현하고, 세 가닥으로 갈라진 손바닥 같은 잎사귀가 연결되었으며 꽃잎과 잎사귀의 잎맥까지 묘사할 정도로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 많다. 여백을 두고 꽃과 줄기, 잎사귀만을 시원스럽게 연결하여 훨씬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넝쿨형으로 표현하였으며 충전형구도로 이루어졌다. 둘째 모란을 보조무늬로 사용한 복

<표 2> 모란무늬의 시기별 조형특징

시기 종류조형성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모란 무늬	구성	모란의 사용빈도가 매우 낮음. 16세기 초기에 모란무늬가 드물게 보이기 시작한다.	4종류의 구성법이 혼재됨 ①모란만을 주무늬로 하여 넝쿨과 앞 으로 연결한 단독 구성 ②모란을 봉황이나 다른꽃과 한쌍으 로 조합한 복합 구성 ③사계절꽃 혹은 과실, 새 등 다양한 무늬와 복합구성 ④다른 소재와 함께 기하형 틀 속에 넣은 복합 구성		모란을 주무늬로 하 여 짧은 가지와 앞 으로 연결 구성
	표현	사실적으로 표현된 탐스런 모란꽃 이 둥근 줄기에 감긴 넝쿨형으로 표현되었으나 아직 정교하지는 못 하다.	①②사실적으로 정교하게 표현된 탐스 런 모란꽃이 둥근 줄기에 감긴 넝쿨 형으로 표현하며 무늬가 대형됨. ③넝쿨형 모란에 비하여 단순하고 짧은 가지가 연결된 꽃가지형으로 표현 ④꽃잎형이나 꽃가지형 모란을 원형 혹 은 사각형의 기하형 틀에 넣어 기하 학적인 느낌.		①모란의 형태를 사 실적으로 자세히 표현하며 짧은 가 지에 꽃과 잎사귀 가 연결된 꽃가지 형으로 표현. ②사실보다 과장하 여 보상화풍으로 화려하게 변형. 대화단이라는 명 칭으로 유행
	구도	충전구도	①②충전구도 ③회화풍구도 산점구도 ④산점구도		산점구도

합구성에서는 모란이 약간 단순화 되었고 짧은 가지에 연결된 꽃가지 형이 비교적 많이 나타났으며 여백에 새, 나비, 벌 등을 넣은 회화풍 구도로 이루어졌다(그림 15) (그림 16). 셋째 모란을 강조하기보다 원형, 타원형, 사각형의 기하형 도안 속에 단순화시킨 모란을 다른 사물과 함께 구성한 모습으로 얼듯 보면 연꽃은 외곽선에 묻혀버려 기하학적인 느낌이 강하다. 여기에서의 연꽃은 꽃잎형이나 꽃가지형의 표현이 많고 격자 혹은 일자형으로 규칙 배열한 산점형 구도로 이루어졌다(그림 17).

19세기부터 개항기까지 100여 년 동안 모란무늬는 다시 직물무늬의 중요한 소재로 자리를 굳히게 된다. 이 시기의 모란무늬의 구성은 크게 2 종류로 구분되는데 첫째 19세기에 유행되었던 화문갑사나 모본단이라 부르는 옷감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한 종류의 꽃으로만 구성되었다. 영왕의 전복에 사용된 화문갑사<sup>36)</sup>(그림 18)와 안동김씨 집안의 모본단(그림 19)<sup>37)</sup>에서와 같이 무늬도 큼직하고 배열도 드문드문

하며 꽃이 커서 대화무늬[大花紋]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전 시대보다 여백이 많이 배열하여 여유움을 강조하였으며 산점형 구도를 보인다. '모본단'이라는 옷감은 '摹本緞' 혹은 '模本緞'이라고 쓰는데, 한자 뜻과 같이 실제 꽃의 길이와 크기를 측정하여 모양을 본 뜬 다음, 그 본을 기준으로 직조한 방식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둘째 주무늬 보다는 매, 난, 국, 죽의 사군자 무늬에다 모란을 보조무늬로 넣어 5종류의 꽃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20)은 19세기 안동김씨 집안에서 출토된 직물<sup>38)</sup>의 사군자 무늬인데 워낙 모란을 선호하다 보니 사군자에 모란을 더 추가하여 모란의 상징성과 화려함을 강조하였다.

19세기 모란의 표현양식도 자세히 분석해 보면 2종류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그림 20)에서와 같이 사진을 찍은 듯이 정교하고 크기까지도 사실과 같은 모란무늬가 있고, 둘째는 (그림 19)의 대화무늬라고 부르는 모란무늬의 경우와 같이 큰 꽃송이만 볼 때에는 모란의 형태이지만 꽃의 곁가지에 붙은 작은

꽃송이는 복숭아꽃 등 다른 꽃모습을 하고 있는 변형된 표현이 있다. 전자의 모란과는 달리 후자는 꽃의 특성을 자세히 표현하려는 의지보다는 시각적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보상화풍 표현양식이다.

### 3. 사양화무늬

매화, 모란, 연꽃, 국화와 같이 사계절을 대표하는 네 종류의 꽃을 중심 소재로 도안한 무늬들을 사양화무늬[四樣花紋] 또는 사계절꽃무늬[四季花紋]로 구분하였다.

네 종류의 작은 꽃무늬를 배치한 직물들은 고려말기의 태사묘 유물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여 조선 초기의 흑석사 복장직물<sup>39)</sup>〈그림 21〉 등에도 나타나기는 하지만 당시에는 각각의 꽃들의 정체성을 표현하기보다는 넝쿨 가지에 작은 꽃들이 연결된 형태로 시작되어 차라리 소화문(小花紋), 세화문(細花紋)이라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꽃들의 정체성이 표현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17세기의 직물에서는 사계절을 대표하는 꽃의 표현이 매우 사실적으로 변화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 사회에 퍼져있는 사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무렵 문인 지식층에서는 우주의 원리를 자연현상에서 찾고자 하였으며, 내면으로만 향하던 사고가 방향을 선회하여 주변 사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영역을 확장하였다. 이로 인하여 사시사철 변화하는 자연풍광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꽃을 통하여 자연현상의 오묘한 조화를 깨닫고자 하였고, 이것이 옷감무늬에도 반영되어 서정적인 정취를 느끼게 하는 조형성을 애호하였다고 생각된다.<sup>40)</sup>

회화 분야에서도 문인화가들이 주축이 되어 사시팔경도, 화조도, 초충도, 화훼도에서와 같이 사계절을 대표하는 나무나 꽃이 중요한 소재가 되었는데 특히 직물무늬에서는 화조도에 영향을 받아 사계절 꽃무늬와 새가 조화를 이루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층 강조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당시의 화원기류(花園記類)의 산문과 화훼 재배와 관련된 서적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화훼 서적으로는 유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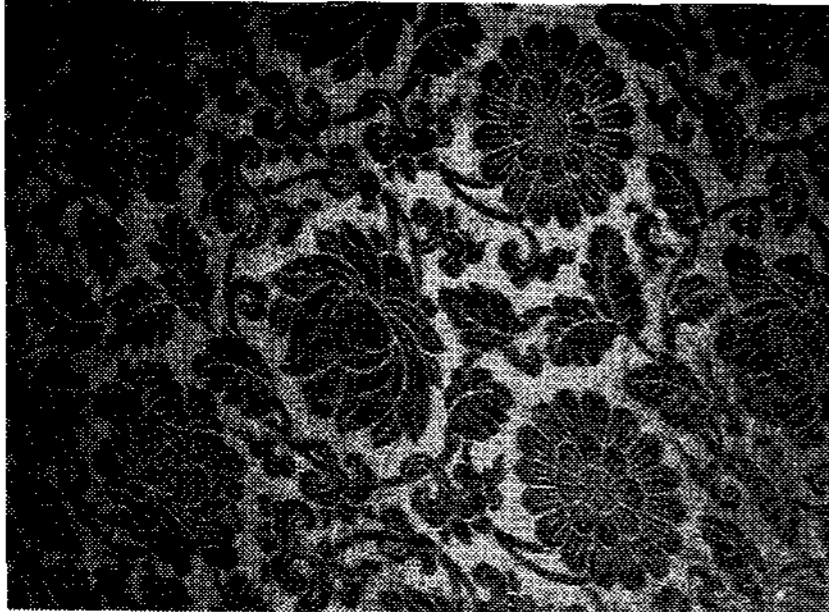
(柳璞)(1730-1787)의 『화암수록(花菴隨錄)』<sup>41)</sup>이 있는데 그 중 〈화목구등품제(花木九等品第)〉항목에서는 45종의 꽃을 9등의 품계로 나누었으며 “1등품에는 매화, 국화, 연꽃, 대, 소나무이며 2등품은 목단 작약 왜홍 해류 파초이며 3등품에는 .....”. 라 하여 꽃의 등급을 매겼다. 직물에 많이 등장하는 꽃들은 주로 1-2 등품에 속하는 것을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화개월령(花開月令)〉에는 달마다 대표적인 꽃을 열거하였는데 직물에 자주 보이는 꽃들을 화개월령에 적용하면 매화는 정월 꽃이며, 복숭아꽃, 배꽃, 해당, 두견화는 삼월의 꽃이며, 월계 모란 작약은 4월의 꽃이고, 규화 연화 석류는 칠월의 꽃이며, 국화는 시월의 꽃이며 동백은 12월의 꽃이라 하였다.

『중국의관복식대사전(中國衣冠服飾大辭典)』<sup>42)</sup>에 의하면 중국에서도 명나라 때에 사계절꽃무늬가 시문된 직물이 유행하였으며 매화, 난, 국화, 하화, 동백, 백합, 수선화 등 각 계절에 피는 꽃들로 구성되며 사계장춘(四季長春)을 상징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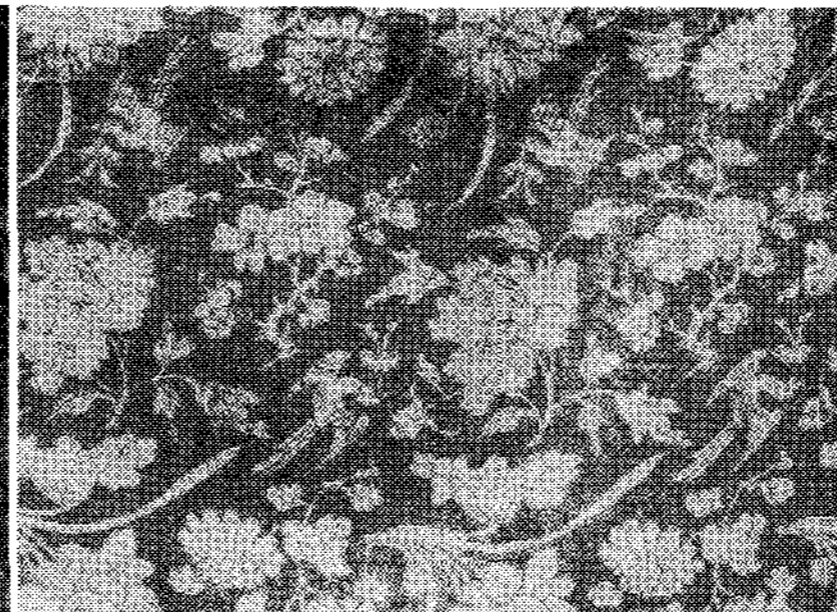
우리의 직물에서도 사계절의 꽃 종류가 반드시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겨울의 꽃으로는 매화, 동백, 난초, 봄의 꽃으로는 모란, 작약, 복숭아꽃, 여름의 꽃으로는 연꽃, 월계화, 가을의 꽃으로는 국화를 대표적인 꽃으로 설정하여 그 중에서 4종류의 꽃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계절 꽃 혹은 사양화 무늬를 도안하였다.

사양화무늬의 구성은 말 그대로 네 종류의 꽃무늬로 이루어졌으며 경우에 따라 잎사귀와 넝쿨이 연결되기도 하고 잎사귀와 짧은 가지가 연결된 사례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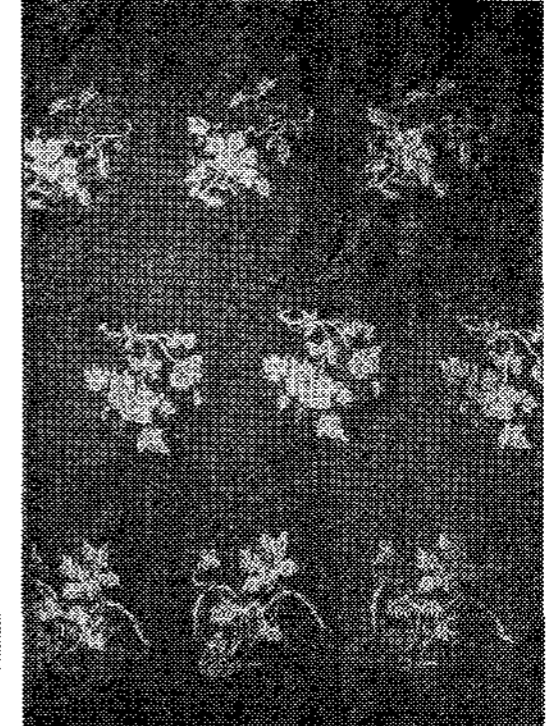
꽃의 구분이 명확해지는 사양화무늬의 등장은 17세기부터이며 이들 무늬의 표현양식은 크게 3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다. 첫째는 여흥 민씨(1586~1656년)묘에서 출토된 직물<sup>43)</sup>〈그림 22〉에서와 같이 봄을 대표하는 모란, 여름을 대표하는 연꽃, 가을을 대표하는 국화, 겨울을 대표하는 동백 등 네 종류의 꽃들이 C자형의 만초넝쿨에 감겨있는 충전구도이다. 둘째는 1631년에 사망한 김확의 부인 동래정씨(1567~1631년)묘에서 출토된 직물<sup>44)</sup>〈그림 23〉에서



〈그림 22〉 여흥민씨((1586~1656년) 복식의 사계화무늬



〈그림 23〉 김확 부인 동래정씨 (1567~1631년) 복식의 사계화무늬



〈그림 24〉 동래정씨(1600년대) 복식의 사계화무늬

〈표 3〉 사양화 무늬의 시기별 조형특징

시기 종류조형성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구성	네 종류의 작은 꽃들과 넝쿨, 잎사귀로 구성		①네 종류의 꽃과 넝쿨, 잎사귀 ②네 종류의 꽃과 짧은 가지, 잎사귀, 새, 벌, 용, 보배 ③네 종류의 꽃과 짧은 가지, 잎사귀	사군자 무늬의 출현으로 사양화(사계화)무늬는 사라짐	
사양화 무늬 표현	네 종류의 꽃이 도안되었으나 꽃의 크기가 작고 정체성을 구분하기 어려워 세화무늬로 분류.		①모란, 연꽃, 국화, 동백의 사계절의 꽃을 단순하고도 특징을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표현하고 넝쿨과 잎사귀로 연결 ②주로 측면형의 꽃을 사실적으로 섬세하게 표현하여 그림과 같은 느낌. 짧은 가지에 꽃과 잎사귀가 달린 꽃가지형으로 표현. ③작고 단순하게 표현하였으나 꽃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짧은 가지에 꽃과 잎사귀가 달린 꽃가지형으로 표현하고 규칙배열을 하여 단정한 느낌을 줌		
구도	충전구도		①충전구도 ②회화풍 구도 ③산점구도(격자형)		

와 같이 매화, 모란, 연꽃, 국화의 네 종류 꽃들이 짧은 가지에 연결된 꽃가지형, 즉 중국에서 절지형(折枝形)이라 부르는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꽃가지형 무늬 사이에는 여백에 새, 벌, 나비 등을 불규칙하게 넣어 전체적으로 한 폭의 그림과 같은 회화풍 구도를 보인다. 셋째는 동래정씨(1600년대)묘에서 출토된 이불감<sup>45)</sup>〈그림 24〉에서와 같이 연꽃, 모란, 복숭아꽃,

동백의 네 종류 꽃을 단순화 하되 형태 특성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도안하여 격자배열이나 일자배열로 드문드문 배열한 산점구도를 이룬다. 전체적으로 매우 단정하고 규칙적인 느낌을 준다.

18세기후반 부터는 사계절 꽃무늬의 유행은 사라지는데 그러한 이유는 소재를 선택함에 있어 자연을 노래하기보다는 벽사나 길상에 대한 선호가 무엇보다

다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 IV. 결론

조선시대 복식 및 직물유물에 표현된 무늬들 중에 시기 감정을 위하여 이 시대를 대표하는 꽃무늬를 선정하여 시대 흐름에 따른 꽃무늬 유행경향을 조사하고, 이들의 구성내용, 표현양식, 구도 등의 조형특성 전반에 관한 변천과정을 정리하였다.

먼저 연꽃무늬의 시대별 조형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연꽃무늬는 조선 초기에 매우 유행하였으며 한쌍의 연꽃의 주위를 만초넝쿨이 등글게 감고 있으며 사이사이에 연잎과 연방이 달려있는 연꽃넝쿨〔蓮花蔓草紋〕 형태이며, 여백에 보배무늬를 넣어 충전감을 더한 것도 있다. 바로 이러한 조형성의 연꽃넝쿨무늬가 16세기를 대표하는 직물무늬로 자리매김 되었다. 그러나 17세기에서 18세기 중기에 이르기까지 연꽃무늬는 앞에서 설명한 전형적인 연꽃넝쿨 도안에서 벗어나며 조형특징이 다양화된다. 첫째는 16세기의 연꽃넝쿨과 구성은 같으나 표현양식이 좀 더 장식적인 보상화풍으로 변화된 충전구도가 많다. 둘째 다른 종류의 꽃들과 함께 보조무늬로 사용된 경우로 이때는 측면형의 꽃을 실물에 가깝게 사실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넝쿨형 혹은 꽃가지형으로 표현되었으며 회화풍구도가 많다. 특히 꽃가지형은 회화풍 구도로 표현된 것이 많다. 셋째 연꽃을 강조하기보다 꽃잎형이나 꽃가지형의 단순화된 연꽃을 다른 사물과 함께 원형, 타원형, 사각형의 기하형 도안 속에 넣은 도안으로 연꽃은 외곽선에 묻혀버려 기하학적인 느낌이 강하며 격자 혹은 일자형으로 규칙 배열한 산점형 구도가 많다. 19세기가 되면 연꽃무늬는 평상복의 옷감에서는 거의 사라져버리고, 원삼과 같은 특수 예복에 부분적으로 사용되거나 불경의 표지 등 특별한 사례에서 보일 뿐이며, 구성 및 형태는 17세기의 넝쿨형 연꽃과 같은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모란무늬는 16세기까지의 출토 직물에서는 나타난 사례가 많지 않은데 이는 연꽃무늬가 워낙 유행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7세기가 되면서 여러

곳의 출토유물에서 모란무늬가 갑자기 많이 출현하기 시작한다. 17세기에서 18세기 중기까지의 모란의 조형특성은 3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모란만 단독으로 구성된 경우와 다른 소재와 한 쌍을 이루는 구성에서는 매우 사실적이며 정교하게 표현한 넝쿨형으로 옷감에 여백이 없는 충전형 구도를 이루었다. 둘째 모란을 보조무늬로 사용한 복합구성에서는 모란이 약간 단순화 되었고 짧은 가지에 연결된 꽃가지형이 비교적 많이 나타났으며 여백에 새, 나비, 벌등을 넣은 회화풍 구도로 이루어졌다. 셋째 모란을 강조하기보다 원형, 타원형, 사각형의 기하형 도안 속에 단순화 시킨 모란을 다른 사물과 함께 구성한 모습으로 얼핏 보면 모란은 외곽선에 묻혀버려 기하학적인 느낌이 강하고 산점구도로 이루어졌다. 19세기부터 개항기까지 100여 년 동안 모란무늬는 다시 직물무늬의 중요한 소재로 자리를 굳히게 된다. 이 시기의 모란무늬는 사진을 찍은 듯이 정교하고 크기까지도 사실과 같은 조형특성을 보이는 것과 큰 꽃송이만 볼 때에는 모란의 형태이지만 곁가지의 작은 꽃송이는 다른 꽃모습으로 그려 특성을 자세히 표현하려는 의지보다는 꽃 자체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보상화풍의 조형특성을 보이는 것이 있다. 무늬가 큼직하고 드문드문 배열한 산점형구도로 전 시대보다 여유움을 느낄 수 있다.

사양화무늬의 구성은 말 그대로 네 종류의 꽃무늬로 이루어졌으며 경우에 따라 잎사귀와 넝쿨이 연결되기도 하고 잎사귀와 짧은 가지가 연결된 사례도 있다. 사양화무늬는 고려 말기, 조선초기부터 등장하지만 무늬의 형태구분이 명확해지는 시기는 17세기부터이며 이들 무늬의 표현양식은 크게 3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다. 첫째 사계절을 대표하는 꽃들이 만초넝쿨에 감겨있는 충전구도이다. 둘째 네 종류 꽃들이 짧은 가지에 연결된 꽃가지형이며 회화풍구도로 이루어졌다. 셋째 네 종류 꽃을 단순화 하되 형태 특성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단위무늬로 도안하여 격자 배열이나 일자배열로 드문드문 배열한 산점구도를 이룬다. 18세기 후반 부터는 사계절 꽃무늬의 유행은 사라지는데 그러한 이유는 소재를 선택함에 있어 자연을 노래하기보다는 벽사나 길상에 대한 선호가 무

엇보다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상으로 조선시대 직물에 표현된 꽃무늬의 조형성의 변천과정을 정리함으로써 복식 및 직물유물들의 감정에 기준이 되는 지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앞으로 용, 봉황무늬, 도류무늬 등 조선시대에 유행하였던 다른 무늬에서도 이와 같은 작업을 계속하여 통합적인 시대별 조형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임영주 (2004). 한국의 전통문양. 대원사.
- 2) 노수정 (2007). 조선시대 후기와 에도시대의 직물에 표현된 식물무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성현 (1493). 樂學軌範. 卷8.9.
- 4) 燕山君日記. 6년 11월 辛卯, 10년 7월 申丑, 11년 2월 壬戌.
- 5) 端宗實錄. 3년 4월 丁酉.
- 6) 世祖實錄. 3년 6월 乙未, 14년 4월 戊戌.
- 7) 成宗實錄. 7년 2월 甲午, 23년 5월 丁酉.
- 8) 仁祖實錄. 6년 11월 己巳.
- 9) 純祖實錄. 34년 11월 戊寅.
- 10) 純宗實錄부록. 5년 9월 8일(양력).
- 11) 순화궁첩초
- 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불교. 古文書集成. 권12 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3) (翻譯)老乞大 上 (1985). 국어국문학총서 12, (翻譯)老乞大 下 (1998). 국어국문학총서 23, 大提閣.
- 14) 譯語類解, 織造.
- 15) 조효숙 (2006). 한국의 전통무늬1-직물. 문화재연구소 편. 놀와, p. 25.
- 16) 姜希顔 (1418-1465). 養花小錄. 四季花.
- 17) 조효숙 (2005). 파평윤씨 모자 미라 출직물에 관한 연구. 파평윤씨 모자 미라 종합 연구 논문집, 고려대학교박물관, pp. 166-167.
- 18) 조효숙 (2000). 장기정씨(1565-1614)묘 출토직물의 분석. 포항 내단리 장기 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안동대학교박물관, p. 98.
- 19) 조효숙(2005). 김여온 묘의 유물을 통해본 17세기의 직물문화. 길짐승홍배와 함께하는 17세기의 무관웃이 야기. 안동대학교박물관, p. 215.
- 20) 조효숙 (2006). 앞의 책, pp. 60-61.
- 21) 조효숙 (2000). 앞의 책, p. 100.
- 22) 조효숙 (2006). 앞의 책, p. 105.
- 23) 조효숙 (2001). 인평대군과 의원군일가 출토직물. 전주이씨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경기도박물관, p. 179.
- 24) 조효숙 (2006). 앞의 책, pp. 49-50.
- 25) 조효숙 (2006). 앞의 책, p. 51.
- 26)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16세기에도 17세기에 유행하게 되는 보상화풍으로 변형된 연꽃무늬가 특별히 품질이 좋은 화문단을 사용한 경우에 드물게 보이는데 이는 중국의 유행을 앞서 받아들인 것으로 아직 조선시대에 보편화 된 연꽃무늬라고는 할 수 없다.
- 27) 꽃가지형이란 꽃송이에 가지와 잎사귀가 짧게 연결된 표현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중국에서는 절지형(折枝形)이라 부르고 있다.
- 28) 꽃잎형이란 마치 도장을 찍듯이 꽃잎만을 반복 배열한 것으로 도자기에서는 인화형(印花形)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나 직조에서 인화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꽃잎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 29) 조효숙 (2006). 앞의 책, pp. 74-77.
- 30) 조효숙 (2000). 長鬢鄭氏(1565-1614)묘 출토직물의 분석. 포항 내단리 장기 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안동대학교박물관, p. 99.
- 31) 심연옥 (2006). 한국직물문양이천년. 삼화출판사, p. 304.
- 32) 조효숙 (2007). 김확합장묘출토직물연구. 김확합장묘 출토복식. 경기도박물관, p. 42.
- 33) 조효숙 (2006). 앞의 책, p. 99.
- 34) 조효숙 (2001). 앞의 책, p. 179.
- 35) 심연옥 (2004). 남오성묘출토복식직물연구. 남오성묘 출토복식. 민속박물관, p. 168.
- 36) 조효숙 (2006). 앞의 책, p. 88.
- 37) 조효숙 (2006). 앞의 책, p. 87.
- 38) 조효숙 (2006). 앞의 책, p. 124.
- 39) 조효숙 (2006). 앞의 책, p. 156.
- 40) 조효숙 (2006). 앞의 책, p. 91.
- 41) 柳璞 (1730-1787). 花菴隨錄. 花木九等品第, 花開月令.
- 42) 周汛, 高春明編著 (1996). 中國衣冠服飾大辭典. 上海辭書出版社, p. 641.
- 43) 조효숙 (2003). 동래정씨흥곡공일가 출토직물연구. 동래정씨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경기도박물관, p. 24, p. 98.
- 44) 조효숙 (2007). 김확(金燮)합장묘 출토직물연구. 전주류씨합장묘 출토복식. 경기도박물관, p. 44, p. 141.
- 45) 조효숙 (2006). 앞의 책, p. 108.